



수신	각 언론사 과학.노동.사회부 담당 기자 등
발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최연택]
연락처	담당: 오수환 교육국장(010-6437-1032)
배포일시	2025년 2월 10일 14시
제목	배선헌 대구TP 전)경영기획실장은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기업지원단장 응시를 즉각 철회하라!

배선헌 대구TP 전)경영기획실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기업지원단장 응시를 즉각 철회하라!

배선헌의 기업지원단장 응시 철회를 촉구한다. 배선헌은 지난 20년 동안 대구 테크노파크 (이하 대구TP)에 근무하면서 갑질과 사익 추구를 일삼아 왔다. 이로 인해 대구TP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대구TP가 제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배선헌은 퇴임 전인 지난해 6월 신고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가해자이자 피신고인 신분임에도 조사 담당 부서장으로서 규정과 절차를 교묘하게 무시하여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무혐의 처리하였다. 게다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로 올해 2월 초부터 진행 중인 재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스스로 떳떳하다면 재조사를 미루지 말고 기업지원단장 응시 전에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배선헌은 경영기획실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8월 초, 직장내괴롭힘 신고인인 노동조합 지부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개인의 인권을 짓밟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였다.

예전 기업지원단장을 수행하다 경영지원실장으로 옮긴 것 또한 기관의 배려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이, 2025년 1월 현재 조직 개편 이후 진행된 기업지원단장 공개 모집에 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구TP 구성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배선헌은 최근 2년 동안 도건우 전 원장과의 학연을 이용하여 갖은 횡포를 저질렀다. 보직에서 물러난 지난 8월까지 수십 번의 부당한 인사 발령을 통하여 경영기획실 직원 길들이기, 폭언과 욕설, 편 가르기, 인격 모독 등을 저질렀다. 과거 기업지원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은 배선헌 단장의 행태에 아직도 치를 떨고 있다. 배선헌이 경영기획실장 재직 당시에 노사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고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왔다.

지난 2011년 지역 모 일간지는 ‘간부 직원 전횡을 못 견뎌 대구TP의 우수인력이 대거 퇴사’ 했다는 보도를 하였다. 잦은 욕설, 심한 모욕감, 고함과 함께 흔히 말하는 배선헌派를 형성하여 직원들의 동향 보고, 사적 대화 내용 감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 악행을 일삼았다. 배선헌은 그야말로 지난 20년 동안 악행과 횡포를 일삼아 왔음에도 주요 보직에 앉아 자신을 지키느라 구성원과 기관을 황폐화시켜왔던 것이다.

그런 자가 대구광역시 경제분야의 고위층을 등에 업고 기업지원단장에 응모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응모는 사실로 드러났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기업지원단장의 공모에 원서를 제출한 그 뻔뻔함에 구성원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모든 시청 공무원에게 산하기관의 인사에 개입하지 말 것을 특별히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음알음 산하기관의 인사에 개입한 공무원이 여럿 있음을 알지 못하는지, 알아도 모른 척 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대구TP는 그간 무너져 버린 조직문화를 바로 세우고 신규사업 발굴 등 대구TP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배선헌은 자신이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기업지원단장 응시를 자진 철회하여야 한다. 만약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반대 서명 운동 및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대구TP의 모든 임직원들은 이제부터라도 대구TP가 첨단기술 R&D와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사회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에 젊고 유능한 인재가 영입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대구광역시의 변화와 관심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약칭 "과기연구노조", 위원장 최연택)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전국 테크노파크,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산별 노동조합입니다. 2024년 4월 창립해 현재 전국에 52개 사업장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8천 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ww.kupst.org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